“일제강점기 제주 위안소 운영”

제주대 조성윤·고성만 교수 연구논문 발표
성산리 소재 민가와 일본인 소유 여관 활용
제주 주둔 진해경비부 장교와 생도 등 이용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군들이 제주도에서 위안소 2곳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목포와 부산 등 3~4곳에 위안소 추정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제주에서 위안소가 존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는(소장 조성윤)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일본 해군이 제주도 성산리에 두 곳의 위안소를 설치·운용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대 사회학과 조성윤·고성만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목격자 인터뷰와 현지조사, 일본측 사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태평양 전쟁 말기 요카렌(予科練·해군비행예과연습생)의 제주도 주둔과 위안소-성산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 발간하는 ‘탐라문화’ 제61호(2019년 6월)에 수록됐다.

논문에 따르면 성산지역에는 2개의 위안소가 운영됐으며, 한 곳은 일반 민가를 개조해 사용하고 다른 한 곳은 일본인이 운영하던 여관이 사용됐다. 위안소를 이용한 일본군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진해경비부 소속 제45신요대(震洋隊) 소속 장교들과 요카렌 생도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8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사무소에서 증언자를 모시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 이어 위안소 터에서 현장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봄부터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결호작전(決號作戰)에 편입되면서 약 7만8000여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미군의 상륙과 지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섬 전역에 대규모 방어시설이 구축됐다.

이번에 위안소를 이용한 부대로 밝혀진 신요대는 미군 함정을 향해 돌진하기 위한 자폭용 보트를 운용하는 특공기지로 제주에는 일출봉 해안에 배치됐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쇠소깍에서 즐기는 뗏목 6일 서귀포 하효동 쇠소깍에서 관광객들이 해설을 들으며 뗏목을 체험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한반도 평화협정 염원하며 제주서 판문점까지 달린다”

마라토너 강명구씨
어제 서귀포시 출발
부산→대전→광화문
29일 도라산역 도착

평화 마라토너로 알려진 강명구씨가 ‘평화협정 촉구 국민대행진’의 출발을 7일 오전 서귀포시에서 알렸다. 문미숙기자

“평화의 섬이자 국토 최남단인 제주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면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길 바랄 뿐이다.”

‘평화 마라토너’로 알려진 강명구(62)씨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국민대행진의 출발을 7일 오전 제주에서 알렸다. 서귀포시 강정체육공원에서 출발한 그는 1100도로를 거쳐 제주도청까지 달린 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전국 주요도시를 달린다.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전날인 이달 26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전야제를 열고, 29일 판문점과 가까운 도라산역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실향민의 아들로 미국에서 수십년을 평범하게 살았던 그가 달리기 시작한 것은 정전협정 70주년이 가까워지는데 점점 잊혀져가는 ‘남북통일’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평화통일의 염원을 미 대륙을 가로질러 남북한 모두의 마음과 일상생활로 끌어내기 위해 2015년 미주 대륙을, 2017~2018년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마라톤으로 횡단했다. 그의 마라톤은 해외 언론에서도 소개되며 ‘한반도 통일이 바로 세계평화’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평화협정 촉구 마라톤을 준비하는 동안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이뤄졌다. “너무 벅찬 광경이었다. 그래서 욕심을 내본다. 제주서 출발해 판문점까지 뛰는동안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분위기가 무르익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라시아를 횡단할 당시 북미 관계는 곧 전쟁을 할 것처럼 으르렁댔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도 꾸려졌다. 평화를 염원하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외롭고 고된 그의 질주를 응원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총력투쟁할 것” vs “갈등만 유발”

제주 제2공항 찬·반단체 대립 격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반대단체가 제2공항 건설 강행 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찬성 측은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 상정이 도민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립되는 입장을 내놨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은 5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와 도민공론화 쟁취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총력투쟁 선포대회 선언문 낭독, 거리행진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제2공항은 신개발주의와 공생하려는 정부정책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자치도의회는 제2공항 강행을 중단하고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제2공항을 강행하는 국토부에 맞서 결사항전의 의지로 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공론조사와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 상정은 도민사회를 건잡을 수 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첨단 공법·기술 집약체인 항공산업에 일반인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려는 공론조사와 10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하려는 조례개정안 상정을 반대한다”며 “정치인들이 공론조사와 조례개정안 상정을 주도해 제2공항 건설을 막으려 한다면 이를 주도한 정치인 퇴진 운동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11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일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현석기자

경찰 지인에 폭력 휘둘러

제주에서 자치경찰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국가경찰이 지인에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0시30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에서 김모(40)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김씨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직급은 경위다. 지난 1월 3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파견돼 제주시내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두번째 SFTS 환자 발생 “고령농업인들 주의해야”

제주에서 올들어 두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A(92·여)씨가 지난 5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제주시에 거주하는 B(85)씨에 이은 올들어 도내 두 번째 SFTS 환자로, 특히 SFTS 고위험군인 고령 농업인들이 농작업이나 텃밭을 가꾸면서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 할머니는 지난달 25일 목욕 도중 신체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발견하고 떼어냈는데 29일부터 식욕 부진과 기력 쇠약, 발열 증세를 보여 이달 4일 병원을 찾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SFTS 검사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평소 집 주변 텃밭에서 풀 뽑기와 고추 묘종심기 등 소일거리로 야외활동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SFTS는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오심,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2018년 전국적으로 259명의 환자가 발생해 47명이 사망했고, 제주에서는 15명의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문미숙기자